

## 地方時代의 浦項市 發展을 위한 提言\*

### The Prospect of Pohang City in the Age of Localizatation

金 甫 炫

(韓國地方行政研究院 非常任研究委員)

오늘 地方時代의 浦項市 發展方向을 摸索해 보는 연찬회에서 基調演說을 하게 된 것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歷史的인 大變革期에 서있는 感이 있습니다. 그것은 來年初에 있을 政府移讓을 앞두고 改憲에 이은 國民投票, 大統領 選舉, 國會 議員選舉 그리고 27年이라는 空白期를 清算하고 實施될 地方自治制등 이른바 民主化 作業으로서 굵직굵직한 政治日程이 바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숨가쁜 民主化日程을 눈앞에 둔 가운데 最近 크고작은 企業體의 勞使紛糾가 全國적으로 擴散되어 우리 經濟와 社會에 엄청난 衝擊을 주고 있습니다. 激變期의 現象으로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紅疫같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勞使問題가 自制와 妥協속에 하루 速히 收拾되어 온 國民이 念願하고 있는 民主發展이 順調롭게 進行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뿐만 아니라 世界史의 時點에서 볼 때 必らず로 世紀的인 轉換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年만 지나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20世紀는 歷史의 章으로 永遠히 사라지고 새로운 21世紀 즉 待望의 2,000年代가 始作되는 것입니다. 回顧컨데 今世紀初 우리는 日帝의 屈辱的인 植民地 統治를 겪었고 8·15光復后 自主獨立 國家의 기틀을 채다지기도 前에 北傀의 南侵으로 同族상잔의 悲劇과 國土의 황폐化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1,900年代에서 50年代末까지는 文字 그대로 試練과 苦難에 찬 期間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0年代初 經濟開發 5年計劃이 着手된 以來 오늘날까지 우리는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을 果敢하게 展開함으로써 比較的 짧은 期間 동안에 놀랄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그結果 國民 모두에게 希望과 自信을 갖게 하였습니다.

즉, 60年代에서 80年代에 이르는 期間은 經濟發展의 基盤 構築期 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하여 오는 21世紀初에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分野에서 先進社會를 實現한다는 目標아래 힘찬 前進을 해 오고 있

\*本 原稿는 1987年 8月 26日 浦項商工會議所가 주최한 「地方時代의 浦項市 發展을 위한 研鑽會」의 基調演說임.

는 중입니다.

특히 88올림픽은 對外的으로 韓國의 地位를 높이고 對內的으로 우리에게 自信心을 갖게 하는 決定的인 契機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1世紀를 어떻게 파악 하느냐하는 問題가 提起되고 있습니다. 이는 論者에 따라 見解를 달리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大體로 高度産業社會, 情報化社會, 國際化·高齡化·高學歷化 社會로 移行 할것으로 보는것이 一般的인 觀測입니다. 특히 國土空間의 多樣化에 따라 産業의 地域分散, 人口의 地方分散등 地方의 役割이 높아지는 地方의 時代를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60年代 以後 高度 經濟成長期를 通하여 地方行政分野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變化는 都市化 趨勢의 急激한 進展이였습니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工業化 戰略의 所産이라 하였습니다. 經濟的으로 工業化를 推進하면 空間的으로 都市化가 出現하게 마련입니다. 흔히 都市는 工業없이도 發生할수 있지만 工業은 都市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西歐에서 經驗한 것처럼 工業化와 都市化는 不可分의 同時 併行的인 概念인 것입니다.

1960年の 農家人口는 1,450萬에서 1985년에 852萬으로 줄어들었고, 反對로 都市人口는 690萬에서 2,645萬, 3倍 以上으로 늘어 났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25年 동안에 우리社會는 傳統的인 農業社會에서 都市社會로 탈바꿈하였습니다.

西歐의 先進國들이 적어도 한 世紀 以上 걸린 都市化 水準을 우리는 不過 그 4分の 1인 25年밖에 걸리지 아니했습니다. 흔히 「世界의 10年은 우리의 1年」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만큼 歷史의 短縮을 해낸 것입니다.

行政 區域上의 市를 보면 1960년에 27市였던

것이 60年代末에 32市, 70年代末 36市, 80年代에 들어서서 25市나 늘어서 現在61市가 되어 都市比率은 1960년에 28%였던것이 지금은 6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同時에 工業化 戰略으로 지난 25年 동안 蔚山, 浦項, 昌原, 麗川등 13個地域에 重化學基地를 建設하였고, 大田, 淸州, 春川등 25個地方都市에 地方工團을 指定함으로써 工業의 힘이 都市人口를 팽창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都市化는 時代에 따라 그特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60年代는 서울, 釜山, 大邱와 같은 大都市의 人口集中 時代로, 그중에도 서울은 年平均 8%씩 늘어 10年만에 倍以上으로 팽창하였고, 70年代는 新興工業 都市가 急成長 하였습니다. 蔚山이 年平均 9.8%, 浦項이 9.5%, 馬山이 7.3%등 높은 增加率을 보였습니다. 80年代 접어들어 지난 85年の 人口 센서스에 의하면 이른바 成長都市와 衰退都市의 徵候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서울, 釜山, 大邱 등의 大都市의 增加率이 다소 鈍化된 대신 周邊都市의 人口가 크게늘어 이른바 大都市의 空洞化 조짐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富川市는 80년에 全國都市 順位 15位에서 8位로 올라간反面, 全州市는 10大都市에서 脱落되었습니다. 이곳 浦項市는 18位에서 15位로 뛰었습니다. 勿論 都市의 成長을 오직 人口의 增大만으로 論할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人口는 都市를 形成하는 가장 基本的인 要素이며 人口의 增減은 곧 都市의 盛衰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70年代以後 先進 工業國에서는 매우 重要한 變化가 일어나기 始作했습니다. 그것은 大都市 또는 工業都市의 衰退現象입니다. 近代에 이르러 發達된 歐美的 大都市나 工業都

市는 共通的으로 人口의 減少와 高齡化가 深化되고 商工業의 雇傭이 減少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서비스화라는 産業構造의 變化와 함께 失業率의 長期化, 그리고 都市의 中核部에서 公害, 住宅難, 犯罪, 教育低下등이 增大되어 地域開發 政策의 調整이 不可避하게 되었습니다.

美國의 東北部 大都市圈이나 産業基盤과 生活環境이 나쁜 大都市는 衰退가 顯著해 졌으며 日本의 三大都市圈人口도 1975年以後 增加勢가 크게 鈍化되고 地方都市의 人口集中이 顯著해 졌습니다. 우리나라의 境遇는 國土開發研究院에서 豫測한바에 依하면 적어도 80%의 都市化率까지는 계속 增加할 것으로보고 그러나 그率은 조금씩이나마 鈍化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國土의 均衡的인 開發이라는 觀点에서 都市化率의 增大가 決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편 社會의 近代化를 端的으로 表示하는 指標의 役割을 해온 것도 事實입니다. 왜냐하면 1人當 國民所得이 높은 나라일수록 都市化率은 높다는 점에서 그러 합니다.

一般的으로 都市化의 進行은 人間生活을 여러가지 側面에서 便利하고 풍요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展開될 우리의 地方 時代는 어떻게 보면 都市의 時代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都市化趨勢에서 본바와 같이 大都市의 時代가 아니고 地方 都市의 時代가 올것으로 展望됩니다. 그것은 또 都市間의 치열한 競爭의 時代를 意味합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이곳 商工會議所가 主催가 되어 浦項市의 自律的 成長과 發展基盤의 構築을 爲한 연찬회를 마련하게 된것은 참으로 時宜適切 하고 意義깊은 構想이라 믿습니다. 地方의 時代는 이처럼 地方發想으로 地方이 主導하는 時代라

할 수 있습니다.

浦項은 1949年에 迎日郡 浦項邑에서 市로 昇格될 當時에는 人口 4萬3千이었으나 現在(1987)는 27萬6千, 當時 함께 市로 昇格된 金泉(7萬7千), 順天(12萬2千), 麗水(17萬2千)에 比하여 浦項이 얼마나 急成長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製鐵工場의 建設에 依한 것입니다. 設立 當時 1968年의 人口는 7萬1千, 工場의 1期設備가 끝난 1973年의 人口 增加率은 18%, 2期設備가 끝난 1976年 13%, 그리고 1978年 8.2%등 높은 增加率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製鐵工場으로 인해 浦項은 運命이 完全히 바뀐 都市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事實 1968年 浦鐵이 들어서기 以前까지만 하여도 이곳은 우리나라 東海 南部에 位置한 海運과 漁業을 主로하는 港口, 農水産物의 集散地程度에 불과 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浦項은 決코 歷史가 짧은 都市도 아닙니다. 記錄에 依하면 멀리 新羅時代부터 大洋으로 나가는 國際港의 役割을 했고 그것은 高麗 朝鮮時代를 거쳐 綿綿히 이어져 왔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浦項市街地의 表情에서 오랜 歷史의 그림자 같은것 보다는 말끔하게 다듬어진 맑은 印象을 받게 되는것은 市内에 세워진 浦項地區 戰跡碑가 象徵하듯이 6·25戰亂의 傷處가 어느 都市 못지 않게 激甚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浦項은 天惠의 山河·江·바다의 自然環境과 文化的 要件등 都市成長에 갖추어야 할 것을 比較的 高루 갖춘 都市라 하겠습니다.

한 3年前에 서울大學 環境大學院의 研究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都市가 어딘가를 最初로 調査 選定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勿論 이것은 무엇을 基準으로 評價하느냐에 따라 順位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都市의 機能要素로 氣候, 住宅, 環境, 健康, 犯罪, 交通, 教育, 文化福祉施設, 經濟成長 등 多様な 것들이 學論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美國의 都市年鑑에서 提示하는 氣候, 休養條件, 또는 犯罪危險性 등에 따라 都市들을 권고하고 있음이나만 環境大學院탐은 ①安全性 ②健康性 ③便利性 ④快適性 ⑤經濟性等 5個部門 37個項目에 걸친「삶의 質」을 測定 點數化하여 順位를 決定했다고 합니다. 이 調査項目 가운데는 上·下水道普及率, 住宅普及率, 大氣·水質 오염도, 騒音度, 道路率, 鋪裝率, 電話, 自家用, 犯罪發生率, 公園率, 文化施設, Open Space率 등 都市 生活의 基本要件은 大體로 包含된 것은 勿論입니다. 그의 綜合結果에 依하면 1位 金泉, 2位 浦項, 3位 昌原 4位 江陵, 5位 鎮海, 6位以下 龜尾, 濟州, 馬山, 慶州, 順天의 順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Best 10의 都市에 慶北의 都市가 네군데나 끼인 것도 注目이 됩니다만 工業都市로서 가장 成長이 빨랐던 蔚山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資料를 引用하는 것은 浦項이 綜合順位 2位라는 上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도 重要하겠지만 한 都市가 自律的으로 成長할수 있는 힘은 經濟的인 뒷받침이라는 事實을 強調하기 爲해서입니다. 經濟力이야말로 가장 基本的인 成長 潜在力 입니다.

이 成長 潜在力에 있어 浦項市가 斷然 1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어 있습니다. 浦項은 地域總生産(GRP)이 他都市에 비해 越等 높은 水準에 있고, 한편 地域總生産額의 93.5%를 工業과 社會間接 및 서비스業이 차지하고 있어 高度化된 産業構造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就業人口에 있어 一次産業 8%内外이고, 大部分 2, 3次 産業의 構造에 緣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調査에서는 GRP뿐 아니라 製造業生産額, 家口當所得, 一人當地域所得, 家口當預金實績, 稅負擔, 失業率, 生活貧困者比率, 建設工事費 등이 分析對象이 되었습니다. 이 經濟性的의 優位는 가장 큰 強點이라 할 수 있으며 成長都市로서 계속하여 躍進할 수 있는 原動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例컨데 1977年 市 財政規模가 一般會計 27億, 特別會計 6億 合計 33億이었던 것이 今年 '87년에 一般合計 206億, 特別合計 129億 合計 335億, 10年만에 10倍 以上으로 膨脹하게 되고 財政自力度에 있어서도 다른市에 비해 높은 水準을 維持하게 된 理由라고 하겠습니다.

浦項市는 그 立地的 與件에 依하여 우리나라 東海南部の 廣域生活圈의 中心都市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第2次 國土 綜合開發計劃에서 均衡的인 國土空間構造의 再編成과 地域生活圈의 設定에 따라 浦項은 蔚珍, 盈德, 永州, 慶州, 月城, 迎日, 울릉을 包括하는 地方都市生活圈 中心都市로서의 役割과 大邱, 龜尾 등 內陸 工業都市의 國際交易를 擔當하는 貿易港인 同時에 우리나라 東南海岸 工業 벨트 地域의 臨海重工業의 核心都市로서 이는 蔚山, 釜山, 馬山, 昌原 工業團地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浦項은 大邱圈, 釜山圈 東海岸 三陟까지의 廣域的인 視點에서, 이 廣域圈에 對하여 어떠한 機能을 提供할 수 있을 것인지 産業의 方向을 생각할 必要가 있겠습니다. 浦項地域經濟의 活性化는 浦項市 單獨만으로 解決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全體的인 眠目下에 그地域分擔의 役割이 決定될 것이며, 우리나라 全體視點에서 地域分擔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年 計劃에서는

地域間 均衡發展과 地方經濟의 活性化를 爲하여 首都圈의 人口 및 經濟力集中의 構造的 原因이 되고 있는 行政, 敎育, 醫療, 金融, 貿易, 情報, 技術 등의 中樞管理機能을 地方大都市에 分散시켜 地方大都市를 中心으로 地方經濟圈을 育成하는 政策方向이 提示되고 있습니다. 이 政策構想이 實現되기 위해서는 地方企業活動 與件의 造成과 地方의 經濟商工行政機能이 強化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地方金融의 活性化, 地方企業에 對한 稅制支援, 企業의 地方移轉과 創業에 對한 效果的인 支援, 地方企業 活動支援機能의 擴大, 地方職業訓練 特히 地方政府의 經濟, 商工行政機能의 強化 등이 함께 補完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點에서 浦項市는 이미 都市計劃上의 人口指標를 2001년에 40萬으로 推定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를 50萬 가까이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圈域의 中樞管理機能 都市로서 確固한 자리를 굳힐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浦項은 港口都市의 利點을 最大限 發揮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經濟는 海外指向성을 계속 추구하게 될 것이므로 內陸都市의 外港인 浦項은 人的·物的 國際交流를 爲하여 荷役能力, 港灣施設의 向上이 더욱 要請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餘年 동안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 太平洋地域의 國家들은 餘他 地域國들 보다 높은 經濟成長과 貿易伸張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들 國家들의 經濟活力은 앞으로도 持續되어 21世紀에는 太平洋地域이 世界經濟成長의 中心地가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太平洋時代의 到來입니다. 이 地域은 先進國, 工業化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 新興工業國, 그리고 최근 工業化를 시작한 東南亞開發國들이 共存하게 되는 만큼 相互補完과

相互競爭 關係가 同時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域內各國은 相互協力과 交易關係가 發展하게 될 것이며 이때를 對備하여 浦項은 慶北地域뿐 아니라 우리나라 對外進出에 크게 寄與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工業構造는 '60年代는 纖維, 衣類 등 輕工業이 主宗을 이루었으나 '70年代에는 鉄鋼, 非鉄金屬, 石油化學과 重化學工業이 先導하였습니다. '80年代 以後 電子工業, 自動車工業, 精密化學, 半導體 등이 主導하기 始作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및 新素材開發에 힘입어 生産性 向上과 品質, 性能의 多樣化가 加速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메카트로닉스, 遺傳工學, 컴퓨터, 通信産業, 新素材産業 등의 技術은 全産業構造를 高度化시키기 爲한 必須的인 産業이므로 이를 重點의으로 開發해야 할 尖端技術産業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未來産業을 地方에서 發展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技術開發에 必要한 研究機能을 地方에서 遂行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技術集約都市의 建設은 地域經濟의 活性化와 地方産業의 育成 그리고 地方人口 定着을 爲해 效果的인 地域開發 戰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日本에서 이른바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構想이 擡頭된 것은 그들의 與件이 이를 可能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人口와 産業의 地方分散이 어느程度 이루어졌고, 따라서 地方分權이 保障된 地方自治가 定着하여 事實上 大都市와 地方都市間의 生活隔差가 거의 없는 까닭에 地方에서도 研究開發 機能이 充分히 發揮될 수 있

있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테크노폴리스는 産業, 學術, 住居가 調和를 이루는 都市를 말합니다. 그것은 技術 및 知識 集約的인 尖端 技術産業이 있어야 하고, 研究開發 機能을 맡는 大學의 存立이 前提되어야 합니다.

그중에도 大學을 必須要件으로 하는 것은 企業의 技術開發, 人材供給, 그리고 人材의 再教育이 絶對必要하기 때문입니다. 이點 研究中心 大學을 標榜하는, 浦項工科大学의 役割은 浦項이 技術集約都市로 指向하는데 매우 重要한 存在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産, 學, 研의 協同을 目標로 하여 浦項製鐵과 그 技術研究所와 더불어 企業研究所는 企業과 關聯된 應用研究 分野를, 學校研究所는 尖端科學이나 基礎研究를 맡아 相互協同함으로써 高級科學技術人力を 養成하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浦項製鐵의 境遇 多量의 原資材와 製品을 값싸게 輸送하기 위하여 港灣이 絶對要件이 되고 있습니다만 尖端 技術 産業을 유치할 경우 原資材와 製品의 迅速한 輸送을 위해 高速道路 그중에도 國際空港의 建設이 아울러 要請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高級技術者, 研究頭腦가 定住하기 위해서는 教育, 醫療, 交通, 通信 등 生活文化 環境의 整備가 充實할 때 産學研의 協同을 이룰수 있고 이때 비로소 地方의 自律的인 發展基盤과 中心都市의 役割을 隊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浦項市の 境遇 産業構造에 있어서 1次 鐵鋼産業이 71.7%나 차지하고 그것은 素材型 重化學工業이라는 點에서 언젠가가 있을지도 모를 未來의 衝擊을 미리 對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알아시겠지만 浦鐵은 日本의 新日鐵, 美

國의 US 스틸과 더불어 世界 最大級 철강 메이커입니다. 그러나 浦鐵은 建設初期부터 집요한 國內外的 妨害壓력과 許多한 難關을 무릅쓰고 4期의 擴張工事を 거듭해 이제 단일 공장으로 世界 第一의 年間 910萬屯 粗鋼生産 能力을 갖추었으며 立地上 확장이 限界에 달하여 光陽灣에 第2 製鐵所를 建設 이미 1期工事が 完成되어 이를 합하면 1,200萬屯, 1990년에는 1,500萬屯의 生産能力으로 擴大된다고 합니다. 또 世界的인 鐵鋼 不況속에서도 浦項製鐵은 1981年 以來 พล稼動을 계속하고 있어 世界 最大의 生産量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美國 最大 메이커인 US 스틸과 資本과 技術의 제휴로 高附加價值製品 分野에도 進出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驚異的인 일입니다. 이미 浦項市 人口增加에 미친 浦項製鐵의 影響에 對하여 言及하였읍니다만 市 財政에서 浦鐵의 比重 역시 絶對적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86年度 市稅 112億中 44億 8千萬원을 納付함으로서 全體의 39.9%, 한 企業이 市稅의 40%를 擔當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처럼 大企業에 依存하는 都市에는 一般的인 市와 다른 特色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企業과 市政의 關係입니다. 아무리 큰 企業이라도 萬能일수는 없기 때문에 都市 發展, 市民福祉에의 寄與에는 限界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相互協調와 함께 機能의 分擔이 要請됩니다. 더구나 自治制가 實施되면 市民意識도 크게 높아질 것이므로 企業과 都市, 企業과 市民의 協調와 公害·環境保全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鐵鋼都市 浦項하면 美國의 鐵鋼都市 Pittsburgh를 聯想하게 됩니다. Pittsburgh는 美國의 東部に 있는 世界的인 鐵鋼都市로서 앞서

말씀드린 US 스틸 工場을 비롯해 美國 알미늄 工場, 化學工場들이 立地하고 있습니다.

Pittsburgh 에 鐵鋼産業이 일어서게 된 것은 Superior 湖岸의 鐵鑛石과 펜실바니아 炭田의 石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交通의 要地입니다.

즉 鐵道와 水路의 連結點으로서 3m 水深의 水路가 大西洋沿岸으로 連結되고 있습니다. 한 때는 人口가 60萬이나 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서 40萬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 理由는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工業都市의 限界입니다. 煤燃의 都市라는 別名도 있고 50年代以後 都市再開發事業으로 애를 쓴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의 鐵鋼王 Andrew Carnegie 가 設立한 財團(基金 2億 4千萬 \$)의 本據地로서 美術館, 音樂堂, 自然史博物館을 同時에 設立하였고, 特히 카네기 工科大学으로 有名하며 大學附設로 金屬研究所, 石油化學研究所, 原子核研究中心 등이 있습니다. 이 大學은 比단 工學科만이 아니라 藝術, 人文, 社會, 産業管理學 分野에도 名聲이 높다고 합니다. 歐美에는 일찍부터 所謂 Industry Capital 개념이 成立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特定한 産業의 首都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特定産業의 工場만 있는 都市가 아닙니다. 工場뿐 아니라 商去來, 金融, 企業의 中樞 管理機構, 技術研究機關, 調查機關, design, 廣告, 弘報, 教育機關에서 展示館, 博物館이 모두 具備되고 그 産業의 企業頭腦의 住居, 그들을 中心으로한 社交 社會가 形成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또 이 知的 從業員을 위한 文化, 慰樂, 情報서비스事業 즉 소프트 分野가 活潑하여 廣域的인 文化的 中樞都市를 말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鐵鋼이 Pittsburgh, 自動車 Detroit, 고무·타이어 Akron, 유리 Toledo, 麥酒 Milwaukee 등이 그 좋은 例라 하겠습니다. Ohio 州의 Akron 은 人口 30萬 程度이지만 Goodyear 와 Firestone 과 같은 世界的인 大企業의 本社는 勿論 그와 關聯된 金融調查, 技術開發研究所가 함께 있으며 고무 産業의 首都라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産業 首都의 例는 많습니다. 단순히 큰 工場이 있는 都市만으로는 文化가 形成될 수 없고 市民과 産業間의 一體感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産業 首都답게 中心都市로서 機能과 情報과 人材가 集積될 때 市民은 그 産業에 愛着과 긍지를 가지게 되고 共感帶가 形成되어 그것은 周邊의 小都市 農村地帶에까지 經濟的, 文化的으로 波及되어 마침내 運轉한 地域 生活圈으로 發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演찬 主題인 浦項市 發展을 위한 地域 經濟行政 그리고 都市計劃에 關해서는 이 分野의 專門家이신 著名한 碩學들의 專門的인 發表가 있을 豫定이므로 저로서는 이 程度로 하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都市發展에 있어서 人間要因의 重要性입니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最近에 들어 人間資本(human capital)의 重要性에 關한 논의가 점점 活潑해지고 있습니다. 無限한 人間의 能力이 最大限으로 發揮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成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해 前 美國 시카고大學 디어도·슐츠(Theodore W. Schultz) 教授가 來韓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社會, 經濟發展에 대한 人間資本의 寄與度를 體系的으로 分析 研究하여 79年度 노벨經濟學賞을 받은 經濟學者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라의 經濟發展에 對하여 韓國은 다른 開發途上國에 비해 우수하고 豊富한 人間資本이 있기 때문에 驚異의인 成長의 原動力 구실을 했다고 分析하고 人間資本의 質的改善을 위한 지속적인 投資만이 賦存資原이 희소한 韓國 經濟의 未來를 決定짓는 열쇠라고 指摘한 일이 있습니다.

事實 우리나라처럼 國土가 狹少하고 資源과 資本이 不足한 나라로서 持續的인 成長을 達成하는 데는 人間 能力의 役割이 매우 重要하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歸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成功事例를 이웃 日本의 經濟發展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企業이나 都市發展에도 適用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浦項製鐵이 있는 이곳에 모였습니다만 浦鐵(POSCO)의 오늘이 있기까지를 注意 깊게 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感動과 教訓을 주기에 充分할 것입니다.

製鐵工場을 始作하려 할때만 해도 韓國에서는 製鐵産業이 不可能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常識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原料가 있습니까, 資本도 技術도 없었고 事實 市場도 不確實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浦鐵이 萬若에 없었다고 하면 韓國의 造船工業, 自動車 工業은 말할것도 없고 地下鐵, 高層建物 등의 都市 事業이 오늘처럼 이루어질 수 있었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企業家 精神 乃至 人間要因의 勝利였다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기를 한 都市의 發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成就 意慾에 불타는 優秀한 人材들의 役割, 人間 要因의 重要性을 거듭 強調하고 싶습니다. 經濟나 企業이나 行政에 있어서도 「사람에서 始作하여 사람으로 끝인다」는 名言을 깊이 認識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은 畫家 한 사람에게 依한 作品이지만 아름답고 살기좋은 都市는 市民全體에 依한 作品이라고 합니다. 市民의 水準이 곧 都市의 水準을 決定할 것입니다.

浦項市는 지난 20年 동안에 눈부신 成長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가 더 重要하다고 믿습니다.

市當局, 商工會議所, 浦鐵과 大學을 비롯한 市民이 21세기를 向해 雄大한 理想을 품고 變化하는 經濟社會 情勢에 지혜롭게 對處하면서 힘찬 前進을 계속하신다면 鐵鋼工業中心의 重工業都市에서 世界的인 技術集約 都市의 實現이 意外로 가까운 未來에 成就될 것을 確信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